“2년 내 불교 AI 윤리 선언 채택해야”

10월 12일, 전자불전연구소 주관
‘AI 인과 · 업’ 주제 학술대회 개최
보일 스님 “기본 원칙 합의 필요”
7대 원칙과 6대 실행 과제 제시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AI부디즘학술원장 보일 스님이 10월 12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불교 AI 윤리 선언’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인공지능(AI) 발전 속도에 맞춰 2년 내에 ‘불교 AI 윤리 선언’을 채택하고 윤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체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AI부디즘학술원장 보일 스님은 10월 12일 서울 남산책방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주최·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주관 학술대회에서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초래될 사회 전반의 심리적 패닉(공황)에 대비해 불교계가 선제적으로 기본 원칙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의 대응이 일회성 이벤트나 단발성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식 윤리 기준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일 스님은 이날 ‘불교 AI 윤리 선언의 방향과 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기존 ‘자비롭고 지혜로운 AI 개발과 활용을 위한 불교인 선언문(가안)’(2025)을 계승하고 불교 고유의 존재론·실천론적 기반을 반영한 ‘조계종 AI 윤리 선언(가안)’을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할 7대 원칙으로는 △자비 △연기적 책임 △지혜와 정견 △중도 △인간 존엄과 불성 △방편과 다원성 △지속 실천을 제시했다.

이어 선언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7대 원칙을 반영한 초안 채택은 물론 △총무원 산하 상설 윤리위원회 신설 △사찰 실무 지침 제정 △종립 교육과정 연계 △아시아 불교 AI 헌장 등 국제 협력 확대 △백서 갱신 및 성과 지표 공유 등 ‘6대 실행 과제’를 순차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보일 스님은 가톨릭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종단 차원의 조속한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스님은 가톨릭이 2020년 ‘AI 윤리를 위한 로마 선언’을 시작으로 2026년 ‘마니피카 후마니타스’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대비해 온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종단 역시 불성·연기·무아라는 존재론적 기반과 자비·지혜·중도·방편이라는 실천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AI 윤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톨릭의 신-인간 구도와 달리 ‘모든 존재의 불성’에 기반한 존엄성과 연기적 상호 조건성, 관계론 중심 사유를 적용한 유연한 윤리관을 정립하자는 취지다.

보일 스님은 “AI 기술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가톨릭이 목소리를 내는 현실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불교 역시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신적 자산과 역량을 결집해 서구 유일신 전통과 차별화되는 독자적 AI 윤리를 수립하고, 이를 살아있는 규범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에게 인과와 업이 있는가’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진선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불교의 업설과 파핏의 관계 R을 토대로 한 AI 사용자 윤리 예비 고찰’을, 허남결 동국대 명예교수가 ‘인공지능의 시대와 불교윤리의 가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차의 목적은 진리 깨닫는 것”

제4회 통도사 국제차문화학술대회
성파 스님 “차는 진리 탐구 이정표”


영축총림 통도사는 10월 9일 해장보각에서 ‘제4회 통도사 차문화대학원 추계 국제차문화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가 ‘남방록에 나타난 센노 리큐의 차사상’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차 문화와 불교 선 사상의 관계를 조명하고 선차(禪茶)의 참된 의미를 모색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열렸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0월 9일 해장보각에서 ‘차와 선이 만나 도가 되다’를 주제로 ‘제4회 통도사 차문화대학원 추계 국제차문화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한·중·일 3국의 석학들이 각국의 선차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노성환 울산대 명예교수는 ‘남방록(南方錄)에 나타난 센노 리큐의 차사상’을 통해 “‘집은 비가 새지 않을 정도면 되고 음식은 굶주리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다도의 본뜻”이라며 “일본 다도의 본질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길이며 일상의 실천을 통해 한 잔의 차 속에 참된 맛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사쿠라모토 가오리 교수(일본 와세다대학)는 ‘남방록에 보이는 문답과 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쿠라모토 교수는 “일본 다도의 고전인 〈남방록〉은 선종의 수행, 그리고 공안(公案) 문답의 구조를 다도에 적용해 초암차(草庵茶)를 선수행으로 이론화한 것”이라며 “복잡한 형식보다는 차를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선의 정신을 차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오등 스님(중국 절강공상대학 동아불교문화센터 소장)은 ‘현대 중국 사원에서 선다문화의 실천 형태’를 발표했다. 스님은 “현대 중국 사원에서 차는 ‘다선일미’라는 관념적 차원을 넘어 대중 교화의 훌륭한 방편으로 쓰이고 있다”며 “사찰에서 대규모 다회를 열어 말을 줄이고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불교 신자가 아닌 이들도 자연스럽게 사찰로 이끌고 승속(僧俗)이 차를 매개로 소통하는 공공의 실천 체계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개회 법문에서 “진리라는 것은 국경도, 사람의 구분도, 고금과 동서도 관계없이 다 통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차 문화를 비롯한 모든 문화는 진리를 탐구하는 이정표와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라는 시비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목적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 즉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며 수행으로서의 다도 정신을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수행 공간에는 차를 마시는 전통이 늘 함께하고 있다”며 “통도사가 한국 차의 성지로서 의미 있는 국제차문화학술대회를 열게 된 만큼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이 대중들에게 많은 공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일타 스님 생애와 사상 조명

은해사·대각사상연구원 세미나
10월 21일 동국대 혜화관서

영천 은해사(주지 성로 스님)는 10월 21일 오후 1시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동곡 일타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2026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 스님)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의 사회로 진행되며, 은해사 회주 돈명 대종사(원로의원)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김광식 대각사상연구원 연구부장이 ‘일타 스님의 생애와 사상-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겸임교수 법장 스님이 ‘일타 스님, 율사로서의 위상’, 전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이 ‘일타 선사의 수행론-선사상과 선풍을 중심으로’,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일타 스님의 교화행’,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은해사의 호국불교와 일타 스님’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상영 전 중앙승가대 교수, 김보과 동국대 강사, 김은영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간다.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은 “율사로서 계율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수행자로서 선의 길을 굳건히 걸으신 일타 큰스님의 발자취는 오늘날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큰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바탕으로 율사로서의 위상, 수행론, 교화행을 살펴보고 은해사의 호국불교와 큰스님의 인연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배희정 기자

뇌허불교학술상에 윤소희 교수

수상작 ‘불교음악의 세계’
12월 24일 동국대서 시상식



‘2026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윤소희 동국대 한국음악학과 교수가 10월 14일 선정됐다. 수상작은 윤 교수가 지난해 출간한 〈불교음악의 세계〉(동국대학교출판부)다.

뇌허불교학술상은 〈불교평론〉이 한국불교학의 태두인 뇌허 김동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매년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낸 불교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불교음악의 세계〉는 고대 인도의 음성 행법부터 한국의 역사적 전승, 그리고 현대의 AI 음악과 명상 치유까지 불교음악의 전모를 집대성한 책이다. 불교음악의 형성과 전개, 불교신행과 음악, 21세기 불교음악을 조명하며 불교사와 음악사, 수행과 문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불교음악의 학문적·문화적 가치를 한눈에 보여준다.

심사위원회는 “이 책은 그동안 우리가 소홀했던 불교음악의 교리적 기원과 역사, 세계 각국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한 600여 쪽에 이르는 이 분야 최초의 역저”라며 “이 책의 가치는 방대한 문헌과 음악 자료,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불교사와 음악사, 수행과 문화적 실천을 연결한 데 있다”고 평가했다. 또 “역사적 전승과 오늘날의 신행을 함께 살피고, 한국불교음악의 특성을 세계불교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한 성과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윤소희 교수는 “불교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학술상의 수상 소식을 듣고 한참을 고개 숙여 합장했다”면서 “역대 수상자에 비하면 부족한 제게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으로 여기며 감사드린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2000여 년 동안 불교가 한민족 문화의 토양이 됐듯 음악 또한 마찬가지로, 21세기를 물들이는 K-뮤직의 뿌리는 불교음악”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불교음악에 대한 관심이 한층 넓고 깊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금은 1000만원이며 시상식은 12월 24일 오후 5시 서울 동국대 동창회관에서 열린다. 배희정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창원 정인사
주지 원행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 분관)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마산시니어클럽
마산회원시니어클럽, (주)고을, 금강어린이집, 정인사 정인학당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전화 055)299-5450

현대불교신문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단청이 아름다운
화개산 반야사
주지 종오 혜명
사부대중 일동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반야사 불교대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